



한국포장기계 대상

전문화된 기술력으로 의약품 계수포장기계 산업 선도 매출액대비 5% 개발비 투자

이종우 / 동원기계 대표

하 한국포장기계협회가 주관하는 제4회 한국포장기계대상 경영관리부문으로 동원기계 이종우 대표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포장기계 대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경영 합리화와 신기술 개발로 회사가 더욱 발전하라는 격려와 당부의 뜻이 담겨있는 상이라 생각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동원가족 여러분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의약품 계수 포장기계 분야의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동원기계 이종우 대표는 “한국 포장기계 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현재 이종우 대표는 전자식 멀티채널 계수기와 주변기계를 전문적으로 개발, 생산해 제품의 성능에 대한 국내 시장 지명도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수입기계의 국산화 대체설비를 가능케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970년대 부친이 경영하던 제일공업사에서 기술, 영업 일을 시작으로 포장기계업에 뛰어들어 이종우 사장은 1986년, 사업을 물려받아 동흥공업사로 창업하게 된다.

“당시는 계수 포장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수입설비도 고가였습니다. 대부분

계약회사에서 수작업으로 생산하는 것에 착안해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성능의 계수포장기를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자”는 일념으로 기술개발하게 됐다는 이 사장은 장기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최초모델인 DW-6 기종의 개발을 완료하게 된다.

이후 동원기계는 지난 1996년 상호를 지금의 동원기계로 변경하고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로 새로운 후속모델을 생산하며 17년 역사의 계수 포장기 전문생산 기업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투자 없는 결실은 없다”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이종우 사장은 기업의 미래를 위한 우수인

“투자 없는 결실 없다” 강조, 성장 거듭

재육성 교육에 심여를 기울이고,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위해 매출액 대비 5%(매출30억 기준 1억 5천만원)를 매년 개발비로 투자, 동원기계가 급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현재 이종우 사장은 기업경영의 합리화와 신기술 개발로 한국의 포장기계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본재 산업의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사원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복리후생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계획도 추진 중에 있다.

동원기계는 수출부문에 있어서도 해외시장에 대한 수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1백만불 수출달성 목표에 도달했으며 독일, 미국, 호주를 비롯한 세계 21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 사장은 “해외시장에서도 유럽국가 제품과 동일한 성능의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인해 주문량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히면서 “해외 수출 고객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순회방문은 물론, 제품의 해외 홍보와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2003년도 상반기 독일 아케마 전시회 등 해외 포장 기계 전시회 참가해 바이어 초청 행사 등을 하며 해외 대리점 관리와 해외 영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동원기계는 올 하반기, 라스베가스 포

장기전시회 등 2회를 참가하기 위해 부스 계약을 완료한 상태에 있다.

올해 세계 25개국 이상의 수출선 확보와 전년 대비 30%의 매출성장을 목표로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세계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는 동원기계. 현재 동원기계는 해외 전시회에 적극 참여하는 등 세계시장에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상호를 (주)카운텍으로 변경, 법인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단계적으로 전제품 CE 마크 인증획득과 ISO 14000 인증심사 후 품질 및 신기술 인증마크 획득을 준비 중이다.

“혼이 담긴 품질과 완벽한 마무리”라는 목표의식으로 고품질을 추구하며 발전하고 있는 동원기계는 매출액 대비 60% 가량의 수출액을 목표로 “1국가 1대리점” 시스템을 통해 현지 대리점을 통한 현지인의 영업, 소모품공급, A/S 및 사후관리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국제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기술력만이 살길이며 이를 위해 우수한 제품을 개발로 세계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이종우 사장.

최고의 기술력으로 거래선을 확대하며 해외 시장을 위한 마케팅, 고객만족을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구하고 있는 동원기계 이종우 대표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